

해인사 대불 조성

일·파·만·파

“대불 강행” - “대형 불사 그만” 접점은 없나

해인사 청동대불 불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재중이던 해인사 수좌 스님 28여명이 실상사에서 소동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재가연대 포교사단 경봉련 등 14개 교계 단체들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26개 광역·교구신도회는 21일 기자회견 및 성명을 통해 대불불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며 조계종단에 공청회를 요청하는 한편, 해인사 수좌 스님들의 참회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불불사와 수행풍토를 바

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해인사는 대불 조성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수좌 스님들의 소동과 관련하여도 언급을 하지 않는 등 대불조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총무원이 사태가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설 경우 조계수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상사 소동

해인사 수좌 28명 실상사에서 집기 훼손

해인사 선방 수좌 스님들이 선방을 나선 것은 일요일인 17일, 본지에 실린 해인사 청동대불 불사를 비판한 수경스님의 기고문을 본 후 수경스님을 직접 만나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대중공사를 거쳐 서울로 상경, 하루를 조계사 인근 모델에서 머문 수좌 스님들은 수경스님을 만나지 못하자 다음날인 18일 총무원을 방문해 수경스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곧바로 지리산 실상사로 내려갔다. 그러나 실상사에서 수경스님을 만나지 못하자 이곳 대중에 지켜보는 가운데 수경스님 최초의 문책을 뜯어내고 집기를 훼손하는 소동을 벌였다.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과 화엄학림 학장 연관스님 등 실상사 스님들은 20일 해인사를 방문,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과 선원 열종 선각스님 등 해인사 사중 스님들과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면서 미리 준비해 온 유인물에 담은 내용대로 해인사 측에 ▲방장스님의 유감표명 ▲주지 및 선원 책임자인 유나의 공개 사과 ▲주도한 스님의 3년간 해인사 출입금지 ▲가급자들의 공개 참회를 요구했다.

한편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은 21일 본지

●해인사 입장

성역화 계획안 배포 문화·수행공간 추진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은 21일 “예정대로 대불조성을 추진할 것이며, 지금 못하면 다음 주지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인사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사의 취지를 다시 설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해인사 박물관장 황적스님은 18일 조계사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교계기자들을 만나 ‘해인성지(중·단기) 성역화 불사 계획안’을 배포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큰 절 내에는 선원 재건립, 율원 재건립(용성스님 율원전시판 포함), 요사채 신축, 화장원을 개·보수해 승가본연의 수행가풍을 진작하고, 큰 절에서 1.5km 떨어진 구 해인초등학교 부지에 대불을 봉안하고 상설 수련원, 영상포교실, 회의장, 팔만대장경 보존연구소 등 재가불자를 위한 문화·수행 공간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간신문 일제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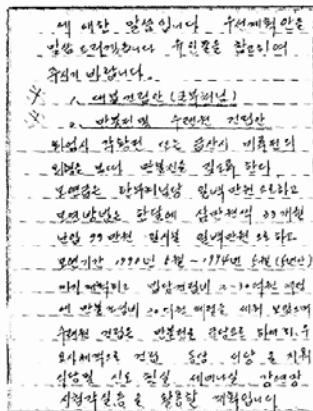
本紙 ‘기고문’ 인용 칼럼·기사 크게 보도

해인사 대불 조성계획 발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을 전해오던 대부분의 국내 일간지들은 18일 해인사 선원 수좌들이 실상사에서 소동을 일으키자 본지(제323호)에 게재했던 수경스님의 ‘해인사 대불 조성 반대’ 기고문을 인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해 세간의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이례적으로 19일자에서

문화면을 할애해 ‘커져가는 해인사 청동대불 논란’이라는 제하로 자세한 내용을 전했고, 한겨레신문은 같은 날 ‘부처님도 돌아앉을 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불 조성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매일은 “대불불사와 폭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장병욱 참여불교 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위원장의 기고문을 실었으며, 세계일보도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 대불불사와 스님들의 소동을 꼬집었다. 조선·동아·중앙일보도 해인사 대불 조성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상세히 전했다.



14개 교계단체는 21일 해인사 대불조성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9년 5월 해인사 임회회의록

●임회회의록 내용

89년 회의 내용공개 ‘만불전 짓도록’ 기록

해인사는 이날 청동대불 건립이 큰스님의 뜻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89년 5월 18일 임회회의록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임회에는 당시 회장 해암스님과 주지 법전스님, 선원 대표, 종무소 소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해인초등학교 부지 사용권에 대해 1.대불 건립안(본부처님), 2.만불전 및 수련원 건립안을 기록하고 있으나, 대불 건립안에 대한 논의는 없다. 다만, 2항에 대해 “회암사 각황전 또는 금산사 미륵전의 외형을 본따 만불전을 짓도록 한다... 수련원 건립은 만불전을 금당으로 하여 좌우 요사채 격으로 건립, 동당 서당을 지어 식당 및 신도침실, 세미나실, 강연장, 시청각실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인사 대불불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총무원 움직임

예민한 사안 인식 양측 원만수습 기대

총무원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원만성취 기원대법회(26일 조계사)를 앞두고 대불 조성을 둘러싼 논란과 해인사-실상사 사이의 관계가 수습되길 바라고 있다.

해인사 대불 조성에 대해 총무원은 예민한 사안임을 인식,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인사와 실상사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조기에 수습되길 바란다”며 “해인사에서 일주일을 기다려달라고 했으니 총무원도 기다려보고, 그래도 수습이 안 되면 두 사찰의 책임자를 불러 수습을 종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계 단체 성명

한국불교 구습 정면지적 해결촉구

경봉련 조계종포교사단 대불청 등 14개 단체 연명의로 낸 성명서에서는 우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해인사 선방 수좌스님들의 폭력사태를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대불불사와 한국 불교계의 해이해진 수행 풍토의 전면 쇄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교계단체들의 성명서에는 그동안 관행으로 받아들이던 대불불사 등 고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불교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정성은·한명우 기자 swjung@buddhapia.com

사·부·대·중

휴전선 농가에서



해관스님 계간(불교문예)발행인

산에 있을 때야 공기 좋고 물 좋은 산을 귀한 줄 모르고 지나다가 포교한다고 시내에 내려와서 살다 보니 그 산이 그렇게 값진 걸 이제야 알았다. 하기가 모든 사물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잘 모르는 법이다.

수행자가 산을 떠나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손에 쥐고 있거나 늘 주위에 마음먹을 때 볼 수 있으면 그 사물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백색에 달린 산과 그 위에 떨어진 동백꽃, 동백꽃 사이로 달 그림자와 소쩍새가 봄을 만들어내는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조화가 아니겠는가! 그런 자연 속에 살다가 삭막한 도시에 살다보면 때로는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때가 많다.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피하고자 들떠 있는 파주 농가에, 일이 없는 날이면 몇 권의 책을 쟁겨가지고 가서 쉬었다 오곤 한다. 앞뒤로 조그만 야산이 있다. 그곳에는 밤나무와 진달래, 아카시아 계절에

맞추어 꽃을 피운다. 밤이 되면 개구리가 울어대고 소쩍새가 철조망을 넘어와 슬피 울고 야침이 되면 철조망 넘어 북쪽 산으로 간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임진각이나 휴전선 이야기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낯선 곳

인 줄 알았다. 그러나 요즘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있고, 육안으로도 희희 보이는 땅에 우리 민족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서로 믿음을 주는 것 같다. 오천년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은 끈끈하게 살아왔다. 물난리를 두 번이나 겪고 태풍이 몇 차례 출고 간 파주 땅이지만, 문화포교원 시멘트 사이에 자라는 구기자나무 이곳에 버리는 듯 심어놓았는데도 죽지 않고 두 해 지난 지금은 붉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구기자나무에서 많은 것을 느낀다. 다른 풀과 나무를 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더 많이 번식하는 생명력이 있다. 우리 민족이 구기자나무처럼 겸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6월, 조용한 들뜬을 바라보며 생각해보는다.

목탁소리

결제 중인데...

한명우 (취재1부 기자)

본지에 해인사 청동대불 불사를 비판하는 수경스님의 글이 나온 후 해인사 선원 수좌 28명은 18일 서울에 상경해 총무원에 수경스님의 사과문을 받아내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실상사를 찾아가 수경스님 최초의 문책을 뜯어내고 집기를 훼손시키는 등 소동을 벌였다.

안거 중인 수좌 스님들의 이같은 행동이 알려지자 불교단체는 물론 일반 불자들의 비난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졌고, 실상사도 해인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소동도 소동이지만 안거 중인 수좌 스님들이 선방을 박차고 나온 것부터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교계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안거는 부처님 당시 출가수행중인 사문들이 비가 내리는 우기에 90일간 한 곳에 모여 수행을 한 데

서 비롯됐다. 무더위 끝에 우기로 접어들면 작은 생명들이 기어 나오고, 이때 물아다니다가는 미를 밟아 죽일 염려가 있기에 생명을 보호하자는 의미도 안거에 내포돼 있다. 오늘날에도 안거는 출가자의 본분사인 해탈의 길로 가는 거룩한 전통으로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나 해인사 선원 수좌들은 안거의 참뜻과는 반대되는 폭력적이고 반불교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수행기풍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금명간 안거 중에 선방을 나선 이유에 대한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대중을 이해시키기는 힘들 것 같다.

선방은 서릿발같은 선의 정신이 흐르는 곳이다. 그래서 안거 중에는 수행하다 죽어도 장사를 지내지 않는다. 선원의 전통이 일거에 무너진 일은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승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용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양형함은 적당 물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쫄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 순신식(2개월 50만원), 순효수정액(2개월 50만원)
-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 구중구보(2개월 150만원), 유행간장(2개월 50만원), 유행된장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서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품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가서 노회약제·양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가서 노회약제 및 양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유」 성분분 대량추출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의뢰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순신식(松仙食)」, 「순효수정액(松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